

진실한 영혼의 기록

-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읽고 -

구 설 영

며칠에 한 번씩은 자다가 꿈을 꾸는, 찾아오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는, 아플 때면 어김없이 식은땀을 흘리는, 관리들의 부정과 자신을 음해하는 동료에 대해 원통함을 느끼는,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에 잠 못 이루는, 찾아오는 이 없이 때로는 혼자 고적하게 앉아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편린(片鱗)을 하루하루 꼼꼼하게 기록하는.

한 사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는 이렇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나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한 동네에 사는 이웃 남자의 이야기 같기도 하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 인물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광화문 거리의 한복판에서, 혹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장 한켠에서 어김없이 만날 수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내가 보았던 그는 언제나 우람한 체구와 엄숙한 표정으로 긴 칼을 찬 채 어린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경이원지(敬而遠之)라 해야 할까. 존경하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웅'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까 싶다. 내가 아는 이순신은 그 영웅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가깝고도 먼 인물이었다.

얼마 전, 나는 그렇게 화석화된 동상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이순신이 아닌, 묵직한 갑주(甲冑)를 벗고 홀로 담담히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를 만났다. 그가 남긴 일기들을 통해서였다. 그의 일기문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부터 임진왜란이 끝나던 해인 1598년까지 이어진다.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틀 전까지도 그의 일기 쓰기는 계속되었다. 그가 전사한 지 197년 후 정조의 명으로 '이충무공전서'가 간행되는데, 당시의 편집자였던 윤행임에 의해 충무공의 일기문은 지금의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난중일기(亂中日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그의 섬세함이었다. 그날의 날씨가 어떠했는지, 누구를 만났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날의 전세(戰勢)가 어떠했는지, 부하들에게 무슨 명을 내리었는지, 자신의 심사에 투영된 풍경이 어떠했는지, 그날 자신의 몸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다. 이는 이순신이 단순히 '무(武)'에만 능통한 관리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생각한다. 그는 감성이 풍부하여 자신이 바라본 세계와 섬세하게 감응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짐없이 일기를 남겼다는 것은 그

가 단순히 기억을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을 넘어서서, 기록을 남기는 데서 모종의 보람과 희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들어 나그네의 가슴이 어지럽다. 혼자 배의 뜰 밑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몹시 산란하다. 달빛이 뱃머리에 들고 정신이 맑아지네.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어느덧 닭이 우는구나.

- 1593년 7월 15일 일기 중에서

‘난중일기’에는 충무공이 혼자서 배의 뜰 밑에 눕거나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나라의 위급한 형세, 멀리 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의 마음은 잠시도 편치 않았을 것이다. 깊은 밤이나 새벽녘에 홀로 생각에 잠겨 있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본원적 고독감이 시대를 초월한 것임을 보여준다. 깊은 사색에 잠겨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거나 시를 짓고 간밤의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의 일상을 통해 나는 충무공이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줄 아는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세상은 그가 세운 전공(戰功)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높이 떠받들지만, 사실 그러한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고도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가 꿈에서 겪은 일들은 번번이 실제 현실에서의 반영으로 나타나곤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영혼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곰곰 되새겨보는 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난중일기에서 나의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충무공이 그의 가족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들이었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그는 홀로 남으신 노모에 대한 걱정과 효심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전장에 나와 있는 그는 멀리 있는 가족의 소식을 탐색선이나 인편을 통해 전해 듣곤 하였는데, 어찌다 오래도록 소식을 듣지 못하기라도 할 때에는 무척이나 답답해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다. 이토록 가족에 대한 애정이 유달리 깊었던 그에게 1597년은 특히 시련의 한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 관직을 빼앗기고 투옥되었다가 겨우 다시 나와 백의종군하던 시절, 그는 그토록 오매불망 그리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만다.

배에서 달려온 중 순화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방을

뛰쳐나가 슬퍼 뛰며 뒹굴었더니 하늘에 솟아 있는 해조차 캄캄하였다. 곧 해암으로 달려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니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모두 다 적을 수가 없다. 뒷날 대강 적으리라.

- 1597년 4월 13일 일기 중에서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의 영전에 인사를 올리고 울부짖었다. 어찌하리오, 어찌하리오? 천지에 나 같은 일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일찍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 1597년 4월 19일 일기 중에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끼던 아들 '면'을 잃게 되는데, 그때의 심정은 너무도 처참하여 읽는 이까지도 깊은 비감에 젖게 만들었다.

새벽 두 시쯤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밭을 헐다 더넷물 가운데 떨어졌는데 말이 거꾸러지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아들 면이 옆드려 나를 안는 듯하더니 깨었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중략) 저녁에 천안에서 온 어떤 사람이 집에서 보낸 편지를 전하는데, 봉함을 뜯기도 전에 온몸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어지러웠다. 거칠게 겹봉을 뜯고 열이 쓴 글씨를 보니 겹면에 '통곡(痛哭)' 두 자가 쓰여 있었다. 면이 적과 싸우다 죽었음을 알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는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다 이처럼 이치에 어긋났는가? (중략) 마음은 죽고 껍데기만 남은 채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구나. 밤 10시쯤 비가 내렸다. - 1597년 10월 14일 일기 중에서

자식들이 더위를 먹거나 중기를 앓는 등의 병세를 보일 때에도 쉽사리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였다. 더더구나 아끼던 막내아들 면이 전사하였음을 알았을 때 그의 무너지는 심정은 어찌 이루 다 형언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정은 꿈에서도 이어지는 것인지, 면의 신상에 생긴 불길한 일이 충무공의 꿈속에 암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역시 내 가슴으로 아프게 다가왔다.

충무공의 곡진한 마음 씀은 비단 가족과 혈연관계에만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균율을 다잡는 준엄함을 보이는 한편, 부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무하며 그들과 고락을 나눌 줄 아는 인물이었

다. 그는 장수들과 활쏘기나 바둑, 장기 등을 함께하며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씨름을 통해 군사들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동시에 체력단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술과 음식을 통해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도 하였는데, 전쟁의 와중에도 동짓날 팔죽을 쑤어 군사들에게 먹이는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또한 그는 누군가와서 선물을 바치려고 할 때면 사양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치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어서 돌려보냄으로써 그것이 뇌물이 될 소지를 차단하고, 혹시라도 백성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엄격하게 경계하였다. 또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전란의 와중에 피해를 입거나 죽게 되었을 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애통해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깊은 공감과 헌신적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밖았으나 바람이 세계 불어 살이 에이는 듯 추웠다. 각 배에 웃도 제대로 못 갖춰 입은 사람들이 목을 움츠리고 추워서 신음하니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 1594년 1월 20일 일기 중에서

밤 10시경 급창(관아에 딸린 노복) 금산과 처자 세 명이 모두 전염병으로 죽었다. 3년 동안 눈앞에 두고 부리던 자가 하루저녁에 죽어버리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 1594년 6월 초5일 일기 중에서

겨울과 봄의 경계에 서 있었던 지난 한 달은 나에게 상실과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다. 달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여서 홀로 책상을 마주하고서 난중일기를 욱심 부리지 않고 찬찬히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위로를 대신해보았다. 나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충무공의 진면모가 간결하고 힘 있는 문장의 행간에서 언뜻언뜻 비쳐보였다. 그의 글이 눈에 익숙해질수록 마음도 한결 그에게 가까워졌다.

우리가 삶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는 '큰 바위 얼굴'들. 그 위대한 영웅은 어찌면 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다만 그것은 나날의 충실함과 스스로를 용기 있게 직면하는 진실함을 갖출 때, 비로소 마주치게 될 수 있을 터.

주저앉지 않으려 한다. 나날이 '난중(亂中)'인 이 세계에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꾸준히 걸어갈 힘을 준 정직한 글월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